

외 부 원 고

홍보대사 / 정 은 아

여행가방을 채 내려놓기도 전에...



여행가방을 채 내려놓기도 전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네 어머니가 크게 잘못 났다.”

당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셨을 며칠 간의 긴장과 피로가 질게 배인 아버님의 음성이었다.

“굳이 알리지 말라고 해서...”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아버님은 잠깐씩 의식이 돌아온 순간에도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즐기고 있을 우리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아버님은 또 곧

이곳대로 혼자 견디시며 우리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침에야 전화를 거신 것이다.

응급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나는 응급 중환자실이란 뜻말을 몇 번이나 되뇌어 읽었다.

괜찮을 거라고, 그 짧은 시간에 근심과 걱정으로 초췌해지신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어머니는 의지가 강한 분이시니 곧 일어나실 거라고 말씀드릴 때까지도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주사바늘과 여러 종류의 고무호스로 연결된 어머니를 처음엔 알아볼 수가 없었다. C1이란 침대를 몇 번이나 스친 후에야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환자복을 입고 무기력하게 누워 계신 모습이 낯설어 한참을 바라보았다.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산소호흡기가 답답하다며 자꾸만 빼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환자, 그 저 울면서 애원하는 가족, 이리 저리 뛰어 다니는 의사와 간호사들... 언젠가 일찍 일어 나서서 머리 곱게 빗으시고 가볍게 분을 두드리고서야 아버님을 보신 깔끔한 성품의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누워 계시다.



“너무 걱정마세요. 잠시 주무시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저와 몇 마디 얘기도 나누셨는걸요.”

망연자실 바라보던 내게 누군가 말을 건넸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누가 왔는지 보세요... 저 며느님 되시죠?... 할머니, 며느리 오면 머리 감겨 달라고 하신됐잖아요.” 놀랍게도 어머님이 눈을 뜨셨고 뭐라 한 말씀하시고는 다시 가수면 상태로 빠져드셨다.

“바쁘는데 뭐하러 오셨냐구 하시네요. 자꾸만 머리를 감겨 달라고 하세요. 지금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실습중인 예비 간호사였다. 담당 간호사며 의사가 있지만 어머님은 유독 그 분을 편해 하셨다. 어머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주고 소통이 어려울 때는 노트와 펜을 가져와 힘없는 손에 쥐어 주며 필담을 나눠 아버님께 보여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두가 위중한 환자들이니 꼭 필요한 만큼의 관심과 손길을 나눠줄 수밖에 없을 터인데도 예비 간호사 한 분이 그렇게 마음을 써드린 것이다. 하루에 두 시간 밖에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니 답답하셨던 아버님도 그 간

호사 덕분에 적이 마음이 놓이시는 모양이었다.

환자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가족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간다. 의사의 한마디 말에 울고 또 낯빛이 밝아지는 것이다. 아무리 냉정해지고 마음 다잡아 보아도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 가족 역시 어머님이 위급한 시기는 넘기시면서 처음 맞이하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려 노력하지만 병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이 버겁기만 하다. 그래도 중환자실 앞에서 동병상련의 눈빛으로 말없이 위로하는 다른 환자의 가족들이 있고 한지선씨 같은 예비 간호사가 있기에 조금 힘을 내본다. 그러면서 문득 백혈병, 혈액암을 앓고 있는 환자 부모들도 이런 심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요즘은 방송에서 하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예사롭게 나오질 않는다. 어머님이 어서 쾌차하셔서 내 방송을 기쁘게 보실 수 있기를... 또 하루가 갔다.